# 광주서 만나는 뮤지컬 '싯다르타'

##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서 공연

### 새롭게 각색한 2021년 버전
### 전 배우와 연출, 안무 교체
### 호남 불교문화 다변화 기여
### 뮤지컬 펀딩도 진행해 화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1 싯다르타' 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불교 뮤지컬 '싯다르타' 가 광주에서 호남 관객들을 처음 만난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 ㈜엠에스엠시와 MC서울이 제작한 '2021 싯다르타' 가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6회에 걸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 불자들에게 선보인다.

2600년 전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 싯다르타(Musical The Life of Siddhartha)' 는 코로나 확산으로 힘들었던 지난해 여름 군포, 부산, 대구 등 지방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로부터 1년만에 당시 공연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에서 다시 막을 올린다.

이번 광주 공연은 5월 22일 의정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성남에 이은 세 번째로 불교 공연이 드문 호남지역에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1년 싯다르타는 2600년 전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 전륜성왕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구도의 길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작 각본에서 3차로 이른바 업그레이드됐다.

2019년 초연 무대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연출과 구성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에는 군포 첫 공연에 이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수성아트홀에서 각각 5회씩 열려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드라마틱한 구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새로운 무대 기술이 어우러진 오리지널 대극장 뮤지컬 '싯다르타' 는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된 3번의 운명적 그 날을 주제로 펼쳐진다.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운명의 날들은 '야소다라를 신부로 맞이하던 19세의 그 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의 그 날',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 날' 이다.

㈜엠에스엠시 김면수 프로듀서는 "시즌3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생동감 있는 무대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각오로 주인공을 비롯한 전 배우와 연출과 안무를 교체했다. 이를 통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어렵게 탄생한 창작 뮤지컬 '싯다르타' 가 국내 무대에서 성공해 명상과 동양사상, 철학이 뜨고 있는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바란다. 더 좋은 무대와 연출, 연기로 관객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불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뮤지컬 '싯다르타' 는 2021년 서울 정기공연을 위해 1000명의 제작자를 모집하는 펀딩도 진행 중이다. 크라우딩 펀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연 펀딩은 관객이 직접 제작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펀드 금액은 제작에 투입되어 캐스팅 등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와 함께 펀딩에 참여한 관객들은 티켓 제공은 물론이며, 리허설 참관, 배우와의 만남, 후원회 밤 초대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 리워드 상품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온라인서 펼쳐진 첫 이주민 찬불가 경연

아시아 불교국가 출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불가 경연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5월 29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제1회 아시아 이주민 찬불가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이 후원한 경연대회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미얀마 등 5개국 21개 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 베트남 한 수진(다음 생에는 연꽃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 방글라데시 바루아 수미(예불의 노래), 우수상에 네팔 소포나(꽃을 보는 눈)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은 7개 팀이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회 아시아 이주민 찬불가 경연대회서 대상 등을 수상한 참가자들.

#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신규포교사 교육

## 금산사 설법전서 사찰문화 등 연수 시작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5월 29일 금산사에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시작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김용수)이 포교사 고시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5월 29일 금산사 설법전에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포교국장 제환 스님, 김용수 단장 등 지역단 임원과 1차 합격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재식을 갖고 사찰문화해설 등 총 40시간의 연수교육일정을 시작했다. 입재식에서 김용수 단장은 "포교의 궁극적 목표는 불교에 기반을 둔 사회건설에 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로서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진정한 포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사 합격을 축하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며 법을 전하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내 삶이 지금보다 편안해지고 주변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인 예비포교사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6월 중 염불봉사 등 각 팀별 연수를 마치고 7월 중 지역단장, 지도법사 평가와 제적사찰에서의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정식 포교사 품수를 받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진행

##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판소리 · 인경체험 비롯해 가족 동참 프로그램 인기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중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의 한 장면.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올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 을 진행했다. 5월 29일과 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통산사의 문화재에 깃든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진행됐다.

'마음 쉬는 토요일' 은 국보 제62호 미륵전, 보물 제26호 방등계단, 보물 제828호 석등, 보물 제827호 대장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금산사 의미를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또한 전주 젊은 소리꾼 최재구와 최지원이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를 통해 금산사 역사와 전통에 대해 특유의 해학과 판소리를 엮어 해설했다.

이와 함께 미륵전 탁본 · 인경체험, 전통한지부채만들기, 여찬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오유지족 다도다식체험, 꽃살무늬 한지등만들기, 미륵전 신건축학개론, 미륵전과 방등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는 모악산 사진관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진행됐다.

'마음 쉬는 토요일' 에서는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금산사와 관련한 퀴즈를 맞힌 참가자들에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이미연(대전시 둔산동) 씨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깥나들이를 못한 지 1년이 넘었다"며 "모처럼만의 외출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의미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산사 관계자는 "불교문화재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어려운 이웃들에 밑반찬 나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5월 30일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열무 얼갈이배추 겉절이, 고등어무 조림, 꽈리고추 멸치볶음의 밑반찬과 바나나, 방울토마토 등 과일이 담긴 반찬세트를 준비해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번 반찬 나눔 행사가 코로나19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만복의 소리 봉사단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다.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